

새 책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이원하 지음)=201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의 첫 시집이다. 이십대 중반, 늦다면 늦은 나이에 문학을 만나 시를 쓰기 위해 제주에 내려온 그가 독특한 감각으로 건져올린 54편의 시를 엮었다. 미용실 스태프, 보조 연기자로 살아온 이력이 말해줄듯 익숙히 보아오던 형식을 완전히 벗어난 새로움이 묘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문학동네, 1만원.



▶혼자라서 그림다(고수유 지음)=어릴 때부터 몽상하길 좋아했다는 저자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그리움과 부대끼며 책을 쓴다. 그에게 그리움은 혼자 걷다 가는 '벗'과 같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그가 청춘 시절을 기록한 앨범을 꺼내듯 에세이를 펴냈다. 다양한 그리움과 삶의 단상을 펼쳐보인 문장에선 내면이 단단해지는 그리움 가득한 향기가 전해진다. 혜세이서재, 1만3500원.



▶지구 행성에서 너와 내가(김민경 지음)=엄마의 장례식 날짜가 세월호 참사와 겹쳐 힘든 시간을 보낸 '세봄'이, 4년 만에 돌아간 학교에서 우연히 '모비 덕'이란 책을 읽고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낀다. 모비 덕은 새봄이와 '지식'이를 연결한다. 모비 덕에 대한 해설서처럼 읽히는 이 책은 서로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킨 소년과 소녀의 진실한 마음을 통해 지구 행성에서 수많은 종들과 살아가는 자아가 어떠한지 보여준다. 사계절, 1만2000원.



▶당신이 명상을 하면 좋겠어요(팀 데스몬드 지음·허윤정 옮김)=아버지의 부재와 어린 시절 노숙 생활, 압으로 인한 아내의 죽음. 이런 시련에도 저자는 다시 일어섰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가 힘이 됐다. 이 책은 그가 명상 스승과 공부해온 여정과 매 순간 더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이끄는 단계별 도움말로 채워졌다. 인생의 폭풍우를 뚫는 조연이다. 한문화, 1만4500원.



▶세계는 지금(문호철 지음)=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의 급습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는 미·중 무역전쟁, 핵무기 확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이어진다. 한 방송국 특파원으로 3년간 백악관과 미 의회 등을 취재 보도했던 저자는 제목처럼 전 세계의 지금을 깊숙이 들여다봤다. 복잡한 인연이 얽히고설기며 돌아가는 세계를 이해하게 한다. 문호철, 1만5800원.



▶진짜 정말 친한 친구(헬메 하이네 지음·김영진 옮김)=닭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돼지와 생쥐, 닭은 어딜 가도 꼭 붙어 다닌다. 같이 음식도 만들고 여행도 가다 보니 좋아하는 것까지 비슷해진 '진짜 정말 친한 친구'다. 그렇다고 항상 사이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늘 함께하기에 다툼도 피할 수 없다. 세 친구의 소중한 우정이 담긴 그림책이 관계 맺기에 도움을 건넨다. 미디어창비, 1만3800원.



대립과 혐오 원인 좌우 아닌 집단 정체성

에이미 추아의 '정치적 부족주의'

집단 본능과 불평등 결합 부족주의 간과해온 미국

2014년 미국 전역의 경찰 수백 명에게 '자신의 공동체에서 가장 큰 위협'을 하나만 꼽으라고 물었다. 경찰 대부분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나 폭력적인 갱단이 아니라 '소버린 시티즌'으로 불리는 반정부적 성향의 집단을 들었다. 이 집단은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급증해 현재 30만 명이 넘는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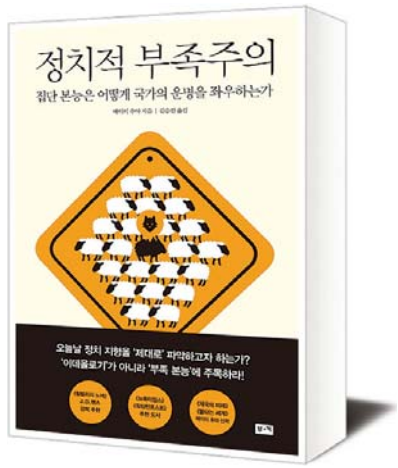
노동자 백인 계급들은 정치 활동 참여도, 선출직 공무원과의 접촉도가 적고 투표율도 낮다. 겉으로는 개인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부족적'이다. 엘리트 계층은 그동안 '부족적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집단들에 눈길을 두지 않았다.

국제 분쟁 전문가이자 '불타는 세계' 등을 썼던 에이미 추아 예일대 로스쿨 교수의 신작 '정치적 부족주의-집단 본능은 어떻게 국

가의 운명을 좌우하는가'는 오늘날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립과 혐오의 원인을 기존의 좌우 구도가 아닌 부족주의 관점에서 찾는다. 지금까지 미국이 부족주의를 간과하고 냉전 프레임으로 베트남, 이라크 등을 바라봤던 탓에 전쟁에서 패배했고 미국 내에서도 부족적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집단 본능은 소속 본능이면서 배제 본능이다. 저자는 집단 본능으로 갈라진 부족과 불평등이 결합하면서 세계 곳곳 정치적 부족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교육 수준, 종교, 젠더 등 정체성의 대결이 좌우 대결을 압도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보자. 이데올로기를 덧씌운 렌즈로 세상을 보면 정치적 격동의 주요인인 집단 정체성이 보이지 않고 그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도 쉽게 해석되지 않는다.

특정 당 지지자나 특정 지역 거주자, 특정 성별 혐오자 사이에는



교류가 전혀 없는 탓에 민족적 차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를 뭉뚱그리고 탈인간화해 적으로 규정된 뒤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가능하다. 저자는 이를 한 명 한 명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생각과 이상을 확인할 때 부족적 적대기 어디에서 발원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야 국민국가를 위협하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서로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진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김승진 옮김. 부키, 2만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모든 고통들 헛되이 흘러가게 말자”

파올로 조르다노의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

“가까운 시일의 약속들은 붕괴 조치 때문에 모두 취소되었고 다른 약속들은 스스로 연기했다. 나는 예기치 못한 공백기에 놓였고 공허함에 휩싸였다.” 지난 2월 29일, 1982년생인 이탈리아 유명 작가 파올로 조르다노가 코로나19 사태의 한가운데서 써나간 글의 한 대목이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나라 중 한 곳인 이탈리아에서 그가 약 30편에 걸쳐 짙짙하게 써나간 문장들이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는 제목이 달린 책은 오늘날 우리가 허무와 고통만을 느낄 게 아니라 그 현상의 이면을 섬세하게 읽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의

사태는 우연한 사고도, 천재지변도, 새로운 것도 아니며 앞으로 또 다시 벌어질 수 있어서다.

저자는 전염의 시대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다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일깨웠다고 했다.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망이 바이러스의 수송망이 되었고 현대사회가 이런 성취는 도리어 형벌로 돌아오고 있다. 전염은 또한 인간관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슬픈 사람들에게 고통감을 안겨줬다. 나이, 성별, 지역, 국적, 인종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전염의 시대엔 투명한 정보는 절차나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예방 의학이라는 점도 배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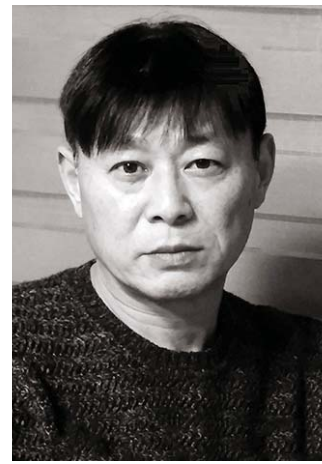
전염의 운명에 다시 묶이지 않으려면, 묶이더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책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 모든 고통이 헛되이 흘러가게 놔두지 말자”는 말이 나온다. 그는 “정상적인 일상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생각의 시간'으로 이 시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되돌아가고 싶은지 등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김희정 옮김. 은행나무, 8500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정찬일 시집 '연애의 뒤편' 동굴 속 아이들 남긴 시린 발자국 밟다



2018년 '취우'로 제주4·3평화문학상을 수상했던 정찬일 시인이 4·3을 그린 시 등을 담은 세 번째 시집을 냈다.



그는 1998년 '현대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문단에 나왔다. 2002년엔 제2회 평사리문학대상 소설 부문에 수상했고 2005년에는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소설로 등단했다. 정찬일 시인이다.

2018년 제6회 제주4·3평화문학상 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을 때는 그가 한 편의 작품을 건져 올리길 위해 오늘도 무수히 답글을 하고 있다는 걸 또 한번 보여줬다. 수상작은 4·3으로 잃어버린 마을인 삼밭구석이 등장하는 '취우(翠雨)'였다. “주먹을 쥔 결기와 투쟁적 언어로는 어제와 오늘, 내일을 열고나갈 시대를 어루만질 수 없다. 서정의 힘이 다시금 필요할 때다. '취우'가 그러한 시적 성취와 함께 치유의 덕목을 고루 갖추었다”며 심사위원들은 그것을 당선작으로 냈다.

4·3평화문학상 '취우' 등 제주 4월 노래한 시편 다수 자연에 상처 어루만지는 힘

그의 4·3 시는 이제 한창 계도에 오른 듯 하다. 보통의 시 창작집 보다 두툼하게 묶인 그의 세 번째 시집 '연애의 뒤편'에 묵직하게 자리잡고 있는 시들이 4월 그날을 노래하고 있다.

큰넙께, 도넛케, 폭낭, 무등이얏 등 그의 시 제목에 등장하는 장소나 자연물은 제주 사람들에게 4·3이 곧바로 연상되는 존재들이다. 특히 제주방언으로 글을 뜻하는 '께'는 선사시대의 유적지 같은 곳이지만 4·3 당시 피난처였다. 제주 사람들은 문명의 시대에 다친 야만의 시절을 그곳에서 견뎠다.

1948년 11월 15일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도화 작정이 시행된 이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무등이얏과 삼밭구석 사람 120여 명이 약 50일 동안 숨어살았던 용암동굴 도넛케. 시인은 '도넛케'에서 “동굴 안을 들여다보는 내 눈길을 누군가 자꾸만 밀어낸다/ 아직 나눌 얘기 남아 있는데 벌써 저물 무렵이다/ 아이들이 즐기고 간 시린 발자국 토박토박 밟아 가며/ 서늘하게 젖은 내 이마에 들는 별 몇 점”이라며 무자녀 아픔에 손을 내민다.

깊디깊은 상처를 다독이는 힘을 시인은 자연에서 찾는다. 표제작에서 ‘제 그림자를 오래 들여다볼 때 뿌리 깊은 밤은 열린다’는 대목에 이르면 생의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닿아있다고 보는 나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떠올려진다. 문학수첩, 8000원.

전선희기자



로이젠본사 보관중이던 미개봉 상품까지도 긴급히 통체로 비웁니다.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5월 31일
까지만 영업합니다

Lifestyle of Gentleman
ROYGEN

전품목
마지막 매장정리 가격에 모두 드립니다

70% SALE

서사라사거리 농협은행 옆

로이젠 본사 직영 제주점

· 영업시간 : 오전 10시~오후 8시30분 · 문의전화 : 064-727-33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24



● 제주한국은행 ● 아스타호텔
● 서사라사거리 ● 농협 ● 로이젠 제주점
● 제주종합경기장 ● 종합경기장사거리 ● 제주보건소

로이젠 BIG사이즈 전문 브랜드

신장:160cm이하/200cm이상 **상의-5XL**
허리둘레:28인치이하/44인치이상 **하의-50인치**